

통영문화재단, 하반기 시민교양강좌 마련

우수 강사진, 저렴한 수강료로 호응도 높아

뉴스일자: 2009년08월28일 12시54분



통영의 문화를 가꾸고 예술을 키우는 법인 '통영문화재단(이사장 최홍림)'이 내달 4일까지 제36기 시민교양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.

시민들의 격조 높은 교양과 정서함양을 도모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통영문화재단 시민교양강좌는 우수한 강사진과 월 1만원에 불과한 저렴한 수강료로 통영, 고성, 거제의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.

내달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시민교양강좌는 유화(서유승), 덧생(이승동), 서예(최규태), 한국화·문인화(김영화), 수채화(노주현), 동화구연(박동숙), 한국무용(장영미), 예쁜글씨POP(신나영), 생활한문(최중호), 아쟁(김귀엽), 도자기체험교실(전현택) 등 통영을 대표하는 유명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며 총 11가지 강좌로 마련됐다.

모든 강좌는 주1회 2시간씩 운영되며, 동화구연, 한국화·문인화, 도자기체험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, 나머지는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. 수강신청 및 문의는 재단 사무국(644-6800)에서 받는다.

이 뉴스클리핑은 <http://hanryeotoday.com>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.